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194.0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194.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상승한 1194.00원에 개장했다. 상승 출발한 환율은 국내외 증시의 주가지 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회피분위기에 상승 폭을 확대하며 1,194.9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원화 자금 수요에 따른 달러 매도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으며 네고와 결제 수급 공방 속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 전일대비 1.60원 상승한 1194.0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2.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8.5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4.00	1194.90	1192.00	1194.00	1193.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4.90	1050.97	1044.90	1050.2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7.77	1356.32	1347.53	1354.1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4	1.26	1.99	2.03
결제환율(수입)	0.31	2.21	3.45	4.47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FOMC대기 속 위험선호심리 훼손...1,19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94.00원) 대비 0.90원 하락한 1,194.0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가 훼손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가 결정된다.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예상하고 있으나 연준이 이번 주에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

을 낮추지 않고 있다. 이에 뉴욕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다. 연준의 긴축 가속에 대한 우려와 계속되는 미·러의 외교적, 군사적 갈등 고조에 위험선호심리가 훼손되며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둔 네고 물량 유입 및 당국 경계는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9.50 ~ 1198.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05.0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0원 ↓
	■ 美 다우지수 : 34265.37, -450.02p(-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9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02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